

PROGRAM

— 1 부

- 개 회 사 사회 자
- 격 려 사 송상현 명예회장
- 인 사 말 이충범 회 장
- 축 사 맹태균 자문위원
- 연구회활동보고 이근성 사무국장



— 2 부

- 식사 및 여흥
- 폐 회

사단
법인 정해복지연구회
Jung Hae Social Welfare Association

서울 동작구 상도동 683 TEL. 817-3304/5

재정 · 운영위원회 창립총회



1990. 11. 1 (목) 오후 6 : 30
하얏트 리젠시 호텔 릴리룸 (2층)
회비 : 부부동반 50,000 원

사단
법인 정 해 복 지 연 구 회

1990. 11. 1. 하이아트 호텔

격려사

오늘은 正海가 法人으로 창설된 제2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흔돈과 갈등으로 점철된 1980년대에 대학교육을 받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젊은 이들이 드높은 이상과 능률한 폐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역사창조를 위하여 굳게 손을 잡은 것이 正海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앞의 위기에 좌절하거나 기성관념과 권태속에 체념하거나 자학하지 아니하고 성장과 번영, 자유와 복지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큰 목표를 위하여 분발과 헌신과 용기를 보여준 李忠範회장 이하 正海가족들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正海가 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목표는 社會福祉의 달성을입니다. 福祉社會의 건설은 우리나라가 어느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한 이 시점에서 온국민이 뜻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입니다. 正海人們의 슬기와 통찰력은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과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업목표로 삼았으니, 앞으로는 오직 학문적 분석과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무한대의 봉사와, 심오한 연구및 어김없는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대 우리의 근대사는 줄기찬 反封建, 反植民 항쟁과 反獨裁 투쟁을 거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시대적召命을 일찍부터 깨닫고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한 正海人們은 소영웅주의와 이기주의로 얼룩진 세태를 떨치고 일어나 인간보호와 인간회복을 이루하는 첨병이며, 갈등속에서도 正道를 찾아내고 회의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의지와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人生은 영원한 미완성이란 말도 있다시피 정해인들중에도 의욕부터 앞서는 혁명가도 있고 몫이해와 否定과 좌절속에서 분한 눈물을 닦는 능동적 실천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正海人们은 성스러운 정의의 힘과 大經大道의 명분만으

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를 알아보고 시기를
잘맞추어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와 기량을 겸비한 인재의 집단이 어
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이상과 실천력, 가능성과 기회, 치밀한 계
산과 우직한 의리, 그리고 合理主義와 人本主義를 한데 조화시켜 아름다운 교향
악이 울려 퍼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21세
기를 사는 이 젊은 세계인들이 自強과 自成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